

세상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역자와 성도들의 기준 수준 표준

-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전서 -

창45:5, 딤후6:11-14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세상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역자와 성도들의 기준 수준 표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디모데전서는 앞으로 2주 동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1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모데전서는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바울의 사역 후반부에 보낸 편지이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디모데는 다문화 TCK 출신이었다. 그래서 행16:1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 영향을 받은 램넛 출신의 목회자였다. 바탕도 너무나도 좋았고,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미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종교인이었겠지만, 바탕이 좋았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디서 구했는지, 그림으로 된 성경책이 있었다. 저녁마다 할머니가 그림 성경책을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다보니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모욕을 당하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헌금할 때 흔들리거나, 교회에 피해를 주거나,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다. 근데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었다. 저도 지금 그 수준 맞추려는데 굉장히 어렵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조모로부터 받은 유전이 있었다. 어릴 때 신앙이 잘 잡혀있으면 타락해도 그 중심은 안 흔들린다. 마음속에 그제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갈거야. 반대로 어릴 때, 램넛 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공허하고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왔고 항상 넘어진다. 말씀이랑 안 맞는다. 이런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서 모두 디모데와 같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딤후 1장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무나도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는가. 그러나 램넛 때 복음을 받은 우리 후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 반면에 늦게 믿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더 갈급하고 더 넘어지면서도 그리스도 붙잡는 것 아닐까. 우리 후대들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엄마야 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착'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없이 교회 다니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 것이 좋아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부모님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램넛들은 그렇게 믿어야한다. 재수 없어서 목사 자녀로, 장로 자녀로 태어났어. 재수 없어서 교회 끌려 다녀 라고 생각하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후대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신앙을 떠나서 말이다. 우리 어른들의 부족한 부분 보면서도 훌륭하고 좋은 부분을 보고 배워야한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절대불가능 한 것이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착하고 바른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착해도 창3장이다. 아무리 성실해도 그 사람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 세상을 망치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망쳐왔다. 잘못되면 세상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 먼저 영적서밋이 되고, 그다음 기능서밋 되고 세상을 바꾸는 문화서밋이 되는 것이다. 딤후 3장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여러분의 온 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을 에베소교회의 목양을 맡겼던 것이다. 너무나 어려운 현상이었다. 우상이 어마어마했다. 험악한 현상이었다. 누구를 이곳에 보내야하나?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여러분이 목회자 앞에 이런 중직자 램넛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평생 도전해야 할 기준 수준과 표준을 알려주고 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의 95%정도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즉 디모데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침이 될 기준 수준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게 전도자의 삶 62가지이다. 디모데전서는 사도바울이 에베소교회를 향해 보낸 사실적인 현장메시지이다. 우리들이 디모데전서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계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때 주신 현장 메세지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내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내야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적용해야 할 메세지는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교회로 보낸 다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이다. 에베소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교리적인 것보다는 교회질서(행정, 직분, 역할, 자세 등)와 삶에 대한 기준수준표준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 기본적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교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면 행정, 일꾼, 질서가 필요하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되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개인의 시간표, 처음 신앙생활 하면 복음을 깊이 알아야한다. 새가족이 되면 기본 메세지를 알아야한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교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나중에 집사, 권사, 중직자가 되면 행정을 알아야한다. 행정, 노회의 역할, 총회의 역할을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조직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디모데전서를 통해 사도바울이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실현될수록 사단은 무릎을 꿇고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교회의 참된 부흥과 세계복음화는 앞당겨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음적인 것이 잘 되어 있어야한다. 그 위에 행정적인 것, 질서가 잘 되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단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다. 회의 제척회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적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100% 동의하고 가야할 수 있어야한다. 나의 주장이 아니다. 어느 큰 교회에 교수, 박사가 많은데 다들 자기주장이 많다. 어떤 일든지 주장하면 반대파가 생긴다. 그러면 다수가 결정해도 또 다른 다수가 반대를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단다. 1명이라도 많은 쪽으로 모두가 따르자. 여러분이 복음적이라면 그렇게 하자. 디모데와 같은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기 의견이 선택 안 되면 기본 나뉠 수 있다. 나의 의견은 이렇지만,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가야겠구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교역자와 전도자들이 알아야 할 기준, 수준, 표준이다.

1) 교역자들은 참 아들과 같은 제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목회의 기준, 수준, 표준이며 최종목표이다. 딤후1:2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사도바울은 기록하고 있다. 저도 제자를 키우기 위해 함께 지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함께 지냈는데, 우리 교단에 가장 큰 교회 담임하고 있다. 근데 처음에 함께 살았다. 학생이 아닌데,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함께 살았다.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얼굴이니, 학부생은 대학원생인줄 알고, 대학원생은 학부생이겠거니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목사됐다.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데리고 다녔다.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저에게 빼고 다 칭찬 받는다. 저 빼고 다 휘어잡더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한다. 미션홈의 축복이다. 교역자, 사역자들은 그게 있어야한다. 나에게 제자가 있어야한다. 내 제자가 아니라, 내가 양육, 위탁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살릴 제자를 키우는 그러한 교역자와 목회자 되시라.

2) 교역자와 전도자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도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유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다. 1:3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①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4 ②"신화와 ③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 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화나 족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 성경보다 족보, 유교,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날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전도자들이 연구해서 빠르게 알려주어야 할 이단과 종교들은 사도바울 당시보다 더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 신천지와 다양한 타종교 그리고 문화화 된 무속, 점술, 우상숭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뛰어남이 없으면 이들의 전략에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단과 종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주일성수도 하지 않고 오해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에 전도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이고, 돈과 지리와 명예와 이념을 전도와 선교보다 더 따르는 목사들이 문

제이다. 그래서 이단이 득세한다. 사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임을 알아야한다.

3)교역자들은 복음과 율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잘 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 선생들 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내용이 딤편전 1장 5절~10절에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딤편전1:8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봐도 우리 안 되고 죄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되어지는 것이다. 나중에 점도 티도 없이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되어진다. 이게 우리의 영적 목표, 인격적 목표, 삶의 목표이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악용해서 헐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가 말 씀드린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악용하는 ‘하나님의 교회’, 144,000명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여호와와 증인’과 ‘신천지’ 등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율법주의와는 다르게 복음적인 삶의 진정한 목표는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구원 받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한다. 살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빛의 제자가 되어야한다. 이게 복음가진 사람들의 인격이요 목표이다. 딤편전 1:5에 보면 “① 청결한 마음과 ② 선한 양심과 ③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소유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시길 바란다. 선한양심만 가져도 된다. 전도자께서 질문했다. “수 많은 목사가 있는데, 니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서 되겠는가?” 거짓 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사랑에 닿게 되어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버려지지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게 진짜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4) 다음으로 전도자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이다. 의외로 목사와 선교사, 중직자 중에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인본주의 쓴다. 하나님이 그 문제도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셔도 된다. 2차 대전 때 천황이 명령하니 일본군이 기꺼이 죽기도 한다. 특수부대 상관의 명령 받으면 죽기도 한다. 천명 받으면 목숨 건다. 목회자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한다. 딤편전 1장 12절에 “--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될 수는 없어도 이렇게 목표를 잡으라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내게 전도자의 직분을 직접 부여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딤편전 1장 1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이라고 확신 있게 자신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한다. 교만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속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되, 교만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

5)전도자는 복음으로 변화된 나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딤편전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 이라고 사도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 나만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한다. 그러면 쉽게 문이 열리게 된다. 쉽게 전달 할 수 있어야한다.

6)전도자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딤편전 1:15에 보면 “--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편전 1장15절의 이 말씀이 정확한 복음이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사도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던 것이다.

7)교역자들은 교단과 노회와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사역을 해야 한다. 노회에서 부를 때 절대 안 나타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딤편전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지도 한 부분이 있다. 그 질서를 따라야한다. 8)교역자들은 믿음 뿐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딤편전 1장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하였느니라” 양심없이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파선된 사람이 많다. 쓰임 받지 못하고 방해된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평생도전하고 갖추어야 할 영적인 기준, 수준, 표준에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

1)남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기도로 응답받아야 한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이러한 중직자가 현장과 교회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딤편전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쉽게 다투고 싸우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중직자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중직자가 3서밋의 응답을 받아 지교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할 수 있다. 일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겠다. 싸움과 일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것이다.

2)여중직자와 성도들은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먼저 “오직 선행”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딤편전 2장 9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땀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2: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당연성)이니라” 꾸미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 안 되겠다. 소박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너무 쉽게 사귀고 헤어지는 등 잘못된 문화가 퍼져있다.

3)또한 사도바울은 딤편전 3장8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남중직자들로 뽑힐 수 있는 자격이라 할 수 있는 기준, 수준, 표준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 3:8 이와 같이 집사들도 ①정중하고 - 신중하고 가볍거나 간사하지 않아야한다. ②일구어언을 하지 아니하고(신뢰성) ③술에 인박하지(중독) 아니하고 ④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직업이 중요) 3:9 ⑤깨끗한 양심(인격)에 ⑥믿음의 비밀(영성)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3:10 이에 이 사람들을 ⑦먼저 시험하여 보고(행정절차:투표, 노회시험, 면접 등) 그 후에 ⑧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장로,인수집사,권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3: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⑨정숙하고 ⑩모함하지 아니하며 ⑪절제하며 ⑫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3:12 “집사들은 ⑬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⑭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오늘은 교회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의 자세와 자격에 대한 내용 중 절반 정도를 나누었다. 다음 주에 지속하여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론으로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통해 우리들의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딤편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성삼위 하나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유일성) 곧 사람이신(성육신) 그리스도 예수라”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를 전 세계 237 나라에 세우는 것이다. 제 3세계 가보면 노회, 총회, 규칙, 임직도 없다. 복음도 없다. 우리가 복음적인 내용과 성경적 전도시스템과 행정까지 전수해줘야 한다.

Dream 꿈이다. 우리의 꿈은 한국교회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야 하겠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고 사건이 많아?’ 그래서 말했다. 기독교와 성경이 교회가 명품이다.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많다. 전문가가 아니면 명품 짝퉁 구별을 못한다. 그래서 교역자가 전문가가 알려줘야 한다.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Image 이미지이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작품이 되어지는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하겠다. 교리, 삶, 전도시스템, 복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Practice 실천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더욱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미션을 드리 고자 한다.

1. 한글복음소식 압송	8. 주일강단메시지 발송
2. 영어복음소식 압송(현재 20명 정도 됨)	9. 각부서 부흥과 전도기획
3. 복음성구 100구절압송	10. 30명 영접 3명 교회화를 위해 집중기도
(참사랑복음성구 100구절 정함)	11. 신천지 등 이단연구
4. 전도대상자 300명 명단 정리	12. 매일 구원의 길 듣기, 쓰기, 그리기
5. 기도수첩 영상메시지 정리(교단호름)	13. 혼자서 교회와 현장에서 하는 릴레이 기도
6. 900현장 정리	14. 24시간 금식기도 (낮12시에서 다음날 낮
7. 전화 및 SNS 통한 심방, 다락방, 강단말씀포럼	12시까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함”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